



2020년도
제18호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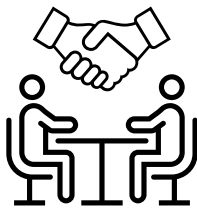
1 체육시민연대 칼럼

노진규, 강정호 선수를 통해서
본 한국 스포츠의 도덕적
딜레마



2 위기의 전국체전

양보 없이는 파행 불가피



3 도쿄올림픽

대회 취소 가능성 제기되자
'간소화' 꺼내 들어



4 E-스포츠와 올림픽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올림픽 문 열 수 있을까



5 체육계 이모저모



‘바람직한 체육사회’

체육시민연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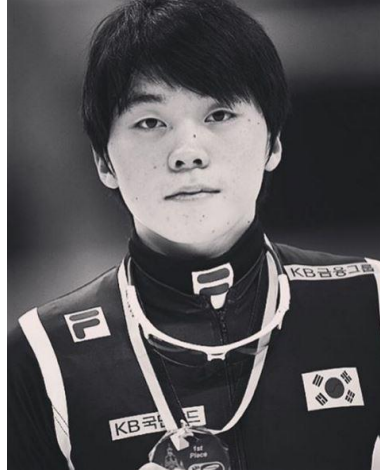
소망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칼럼]

노진규, 강정호 선수를 통해서 본 한국 스포츠의 도덕적 딜레마

서성우 /
체육시민연대
사무차장



2016년 4월 3일,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선수가 골육종으로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

故 노진규 선수는 2013년 9월 개인병원에서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발견하고 골육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K대학 A의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골육종이 아닌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고 “악성일 가능성이 낮으니 내년 2월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종양을 제거하자”,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등의 소견을 받아 다시 훈련에 돌입하였다. 그 후로도 종양은 계속 커져만 갔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다 끝내 숨졌다. 직접 사인은 골육종이었다.

이 꽃다운 청춘의 죽음은 불가피했던 것일까. 운동선수들의 부상투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정서가 의사 소견에 투영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에 의학 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에서 골육종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였다.

연구 기관	결론 요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2011)*	골육종의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원자력병원 정형외과(2015)**	거대세포형 골육종은 오진이나 진단 지연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대세포종의 경우 골육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진 시 환자는 악성 종양과 전혀 다른 치료 방침을 따르다가 재발이나 전이 등으로 매우 진행이 된 후에 알게 되므로 동반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오진이나 진단 지연의 확률이 있고 오진이 초래할 위험이 크다면 대회 출전여부를 따지기 전에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을까. 의사가 그를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평범한 스물 셋 청년으로 바라봤다면 종양 제거를 내년으로 미루자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래계속



2020.05.18. 수술도 미뤘다...아파도 아프지 않은 권한진의 '부상 투혼'
2020.01.14. '부상 투혼' 김연경 "모든 것 걸고 싶어 진통제 맞고 뛰었다"
2020.03.27. '부상투혼' 손흥민, "통증 느꼈지만 팀 돕고 싶었다"

운동선수는 왜 자신의 안위를 등한시하고 팀(국가)을 위해 희생하면서 부상을 감내하는가?
이는 '선수라면 마땅히'라는 필행(必行)의 관습이 스포츠에서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포츠에서 '부상투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팀(국가)의 승리를 위해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경기에 몰입하는
모습은 투혼과 희생, 도전이라는 단어로 미화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 지도자의 지시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문화 등이 그들의 행동을 강
제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습은 선수가 부상 이후에 충분한 휴식과 치료
없이 복귀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선수생활을 단축시키고 선수들의 자기결정권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수들의 부상투혼 이면에는 비출전이 초래할 손실에 대한 두려움, 주전 경쟁에서의 패널티,
주요타자들에 대한 실망감 등에 대한 압박이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관습과 반인권적 상황은
운동만이 살 길이라고 인지하는 선수들의 인식과 맞물려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유독 스포츠에서 고통과 인내를 강요 받고 반인권적 상황이 재생산되는 이유는 일상적인 삶
에서의 행위는 대체로 엄정한 기준에 의해 제어되는 반면 스포츠의 행위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정의할 수 없고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행위가 정당
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인내하는 것을 스포츠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선수
들은 부상, 은퇴, 나아가 죽음의 위험까지도 직면할 수 있으며故 노진규 선수 사례와 같은
희생이 반복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승패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국내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계속





강정호는 2010년대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이자 역대급 유격수 계보의 일원이다. 또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최초의 한국인 야수로, 2015년과 2016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국보급 타자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무려 3회의 음주운전 적발과 자기범인도피교사를 저지르면서 프로 경력이 중단되었다가 2018년 말에 겨우 복귀했으며 시즌 중간에 방출되었다. 그런 그가 2020년 4월 29일 기준으로 KBO 리그 복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이 한국에서 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에서 돌아온 강정호를 공항에서 맞이한 50여명의 취재진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는 끝내 답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야구로 보답하고 싶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강정호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받았고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를 영입하는 문제나 야구 종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강정호가 다시 국내 무대로 돌아와서 팀의 승리를 가져오고 관중의 환호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스포츠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면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귀결은 프로선수, 지도자, 아마추어(학생)선수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는 죄를 지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죄의식의 부재를 초래하고 스포츠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여 도덕적 무감각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과론적으로 故 노진규 선수와 강정호 선수의 사례는 스포츠 윤리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인권과 인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을 제공한다.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선수의 인성이 등한시되는 사회구조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020.06.12

체육시민연대



전국체전 70년 만에 위기...

‘양보 없이는 파행 불가피’

오늘(12일) 서울역의 한 미팅룸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7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경상북도의 전국체전 연기 요청에 따른 실무협의였다. 회의는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전국체전 연기는 차기 개최지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2시간의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경상북도의 갑작스러운 전국체전 연기 요청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국체전 1년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재유행한다는 전망도 있고 체전을 강행하더라도 해외선수단 불참과 종목별 분산 등으로 반쪽 대회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취소가 아니라 연기를 선택했다. 101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8~14일 구미를 중심으로 경북 12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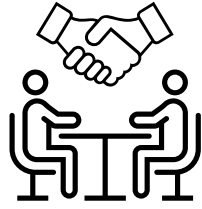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방역당국, 차기 개최지 등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경북이 사전협의 없이 연기 요청을 했다."며 "이 문제는 차기 개최지 등의 협조가 우선"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올가을 전국체전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대한체육회는 난감해 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경북에서 2주 전쯤 비공식으로 대회 연기 가능하냐고 문의가 오긴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 연기 요청해서 체육회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을 가능한 종목으로라도 진행하고 싶다는 게 지금까지 체육회의 기본 입장이었다.

아래계속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410>





■ 울산 "내년 전국체전을 예정대로 개최하고 싶다"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규정을 보면 개최시기를 변경하려면 차기 개최지와 사전 협의 후 체육회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경북의 전국체전 개최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당장은 내년 개최지인 울산부터 동의해야 한다.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0조(개최지 시·도지회의 의무)

③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회가 제1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기 결정된 시·도지회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한 후 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경북의 연기 요청 당일 오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내년 울산에서 전국체전을 어떻게든 실현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나머지 문제는 상황을 봐 가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의 발언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관계자는 "송 시장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울산이 전국체전 연기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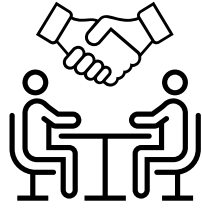
해마다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지는 이미 2024년까지 결정됐다. 2021년 울산, 2022년 전남, 2023년 경남, 2024년 부산이다.

대회가 1년씩 밀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지자체로선 부담이 생긴다. 체육계에선 "전국체전은 지역의 최대 행사로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에겐 중요한 이벤트여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래계속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410>





■ 전국체전 연기 문제로 소년체전·생활체육대축전 연쇄 파행 우려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지 못하면 1950년 한국전쟁 첫해 취소가 된 이후 70년 만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1953년에도 열릴 정도로 유서 깊은 한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전국체전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이듬해 소년체전, 그 이듬해 생활체육대축전을 연다. 한번 개최지가 정해지면 엘리트-학생-동호인 전국대회 '3종 세트'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올해 소년체전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서울에서 열릴 소년체전은 5월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황.

12일 전국체전 연기 대책회의에서 올해 소년체전 개최지인 서울(2019년 전국체전 개최)은 대회를 연기가 아닌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2018년 전국체전 개최)도 올해 생활체육대축전 취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회를 1년 미루면 조직 유지 등에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소년체전이 취소되고 전국체전이 1년 연기되다면 내년에 경북에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을 함께 열어야 해 일정이 꼬인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만약 올해 3개 대회 모두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경북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메인이벤트인 전국체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부터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만 치러야 해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

■ "순차적 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결 실마리도

결국, 현재로선 대회를 1년씩 모두 연기 하는 게 차선책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12일 대책회의를 앞두고 "순차적 연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인다. 울산은 "다음 주 중 지역 내 의견을 취합해서 '대회 순차적 연기'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과 경남, 부산은 울산이 순차 연기를 수용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과 전북이 소년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취소를 강행한다면 논의 진행이 어그러질 수 있다. 문체부는 다음주 올해 소년체전-생활체육대축전 취소 문제에 대해 교육계 등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jaemins@kbs.co.kr

자료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410>



취소 위기 몰린 도쿄올림픽, '간소화' 꺼내 들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가 비용 삭감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도쿄올림픽 간소화에 합의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조직위원회가 참가자 수 축소와 관련 행사 재검토 등 대회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기본 원칙을 전날 열린 아이오시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원칙은 대회 핵심인 경기나 참가 선수 축소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치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회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번 간소화는 올림픽 취소를 막기 위한 아베 총리의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주변에 "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내년에 개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소화 결정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완전한 형태'라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경기나 참가 선수 축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아이오시와 일본 정부, 도쿄도 등이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 비용도 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회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아이오시는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표현 허용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아이오시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각) 내부 선수위원회에서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아이오시는 올림픽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givenhappy@hani.co.kr

자료 출처: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48912.html





젊은 세대 열광 e스포츠, 올림픽 문 열 수 있을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는 지난해 4월 15일 끝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우승 상금으로 207만 달러(약 24억8000만 원)를 받았다. 우승 상금을 포함한 이 대회 총상금은 1150만 달러(약 137억7000만 원)였다.

이날부터 105일이 지난 7월 29일 카일 기어스도프(18·미국)는 ‘포트나이트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포트나이트는 2017년 첫선을 보인 ‘비디오 슈팅 게임’이다. 기어스도프는 이 대회 우승으로 300만 달러(약 35억9000만 원)를 받았다. 우즈보다 1.5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이 대회 총상금도 3000만 달러(약 359억 원)로 세계 최고 권위의 골프 대회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마스터스만 포트나이트 월드컵에 밀린 게 아니다. 테니스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imbleton 남녀 단식 우승 상금도 235만 파운드(약 35억7000만 원)로 기어스도프가 받아간 돈보다 적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총상금이 3000만 달러로 포트나이트 월드컵과 같았다.

게이머의 인기도 기존 스포츠 스타에 뒤지지 않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은 자사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인기를 측정해 알려주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선수 ‘페이커’ 이상혁(24)이 ‘피겨 여왕’ 김연아(30)보다 더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다.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28·토트넘)조차 2018년이 되어서야 페이커의 인기를 앞섰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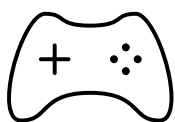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스포츠 시계가 멈춘 사이에 게임, 즉 e스포츠의 주가는 더욱 올랐다. 그런데 과연 e스포츠를 일반 스포츠와 똑같이 취급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적어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그렇게 판단했다. OCA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를 치르면서 e스포츠를 시범 종목으로 채택했다. △스타크래프트 II △클래시 로얄 △펜타스툼 △하스스톤 △LOL △PES(위닝일레븐) 2018 등 6개 게임이 열렸다. 대회 조직위는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스포츠 형태가 급속히 발전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스포츠를 ‘새로운 스포츠 형태’라고 해석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는 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다.

아래계속

자료 출처: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00613/101489645/1>





그렇다면 e스포츠를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을까. 어떤 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단 e스포츠도 FIFA처럼 종목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를 만들면 GAISF에 가입하는 건 가능하다. 이미 체스나 카드 게임 '브리지' 등이 이런 절차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IOC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67·독일)이 기회 있을 때마다 "e스포츠는 폭력적이라 올림픽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펜싱 종목에 출전했던 바흐 위원장이 폭력성을 이유로 e스포츠를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바흐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IOC 안에서도 바흐 위원장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올림픽은 갈수록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를 만회하고자 2020 도쿄 올림픽은 3대3 길거리 농구,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장애물 경주(BMX) 등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2024 파리 대회 때는 브레이크 댄싱도 정식 종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를 IOC에서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흐 위원장은 또 "e스포츠는 신체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림픽 현장 어디에도 신체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움직여야 스포츠로 규정하는지를 다룬 조항은 없다.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 체스와 브리지를 총괄하는 국제체스연맹(FIDE)이나 세계브리지연맹(WBF)은 이미 IOC 공인 단체이기 때문에 e스포츠만 유독 신체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e스포츠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e스포츠 올림픽'을 따로 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에서 400명이 넘는 전문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가장 많은 29%가 'e스포츠는 올림픽과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하면 된다'고 답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서 IOC와 제휴해 올림픽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여는 것처럼 e스포츠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를 세워 별도로 올림픽을 치르면 된다는 주장이다.

kini@donga.com

자료 출처: <https://www.donga.com/news/Sports/article/all/20200613/101489645/1>



[체육계 이모저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성스포츠리더 언택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박병호, 양의지 등 거물급 야구선수들의 계약을 성사시킨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가 '스포츠에이전트 직업의 이해'에 대한 강연을, 스포티비 게임즈 통역사로 활동하며 리그오브레전드(LOL) 롤드컵, 레전드 올스타전 통역 및 인터뷰로 활약한 박지선 통역사가 'e스포츠산업으로 보는 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K리그 1호 여성 실무리더이자 드라마 '스토브리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김은영 서울이랜드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은 '여성스포츠리더의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에 대한 지식을 나눌 예정.



대한체육회와 연세스포츠과학 및 운동의학센터(센터장 이영희)는 5일 IOC 연구센터를 공동 운영키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고 향후 IOC 리서치센터코리아(IOC Research Centre Korea·가칭)로 새롭게 연구소를 확대하기로 함.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연구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IOC 리서치센터코리아 발족과 함께 선수들의 부상에 관한 공동 연구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상해 예방책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대회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경기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경기도체육회가 도민에게 안정적인 체육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글로벌위기관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국내·외 체육활동 지원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자문 ▲스포츠 관련 위기관리와 범죄예방 등 공동 관심분야의 교육과 연구 ▲양 기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협력 사업 등 내실 있는 운영과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활동을 함께 수행키로 함